

전남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성공예감'

서울 학생 높은 관심 106명 3월 도내 25개교에 전학

장석웅 교육감 "학생 안전 최우선에 두고 사업 진행"

서울 지역 초·중학생 106명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남 도내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전학한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26일 오후 전라남도교육청 2층 기자회견실에서 전남교육 유튜브 채널(전남교육TV) 생중계 방식의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갖고 '2021.농산어촌유학' 학생 모집 결과와 구체적 추진방안을 밝혔다.

장 교육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남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7일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유학생을 모집한 결과 초등학생 85명, 중학생 21명 등 모두 106명이 신청했다. 이 중 가족 전체가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농가에서 생활하는 '농가형'은 33명, 해당 지역 유학센터에서 생활하는 '센터형'은 5명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은 이들 신청 학생 모두를 도내 10개 시·군 25개 학교(초 17 / 중 8)에 매칭, 오는 3월 1일부터 전학해 현지 학생들과 함께 생태 친화적 교육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매칭 학교는 순천이 7교로 가장 많고, 화순·강진 각 3교, 담양·곡성·장흥·영암·신안 각 2교, 해남·진도 각 1교 등이다.

전남 농산어촌 학교에 전학한 서울 학생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전남학생과 더불어 소규모 개별화 수업을 받고, 전남의 친환경 식재료로 만들어진 건강한 급식을 제공 받고,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에서 성장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 농가와 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도록 하고, 지역별 성범죄자 현황과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현재까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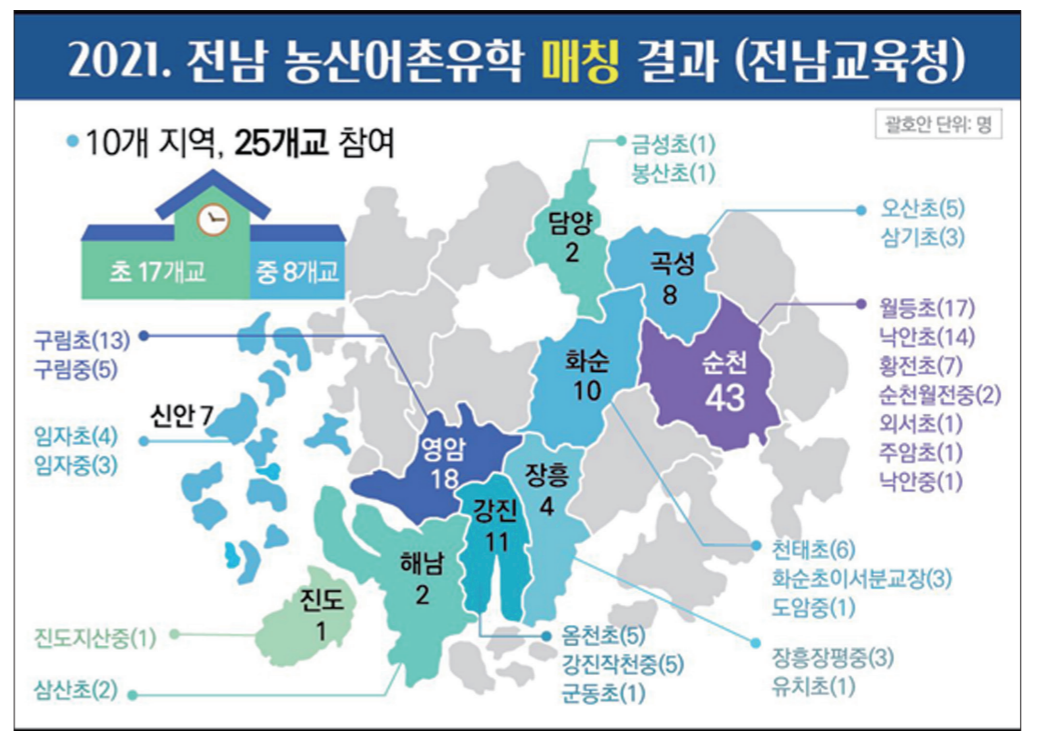
학 운영 학교와 학생 거주 예정지 인근에는 성범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교육감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와 마을 관계자들에게 "CCTV 설치, 방범순찰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학교 뿐 아니라 지자체, 지역주민,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전남의 작은 학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예방에 유리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서 "농산어촌유학은 전남 작은 학교의 이런 장점을 도시학생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가족들의 유입을 통해 전남 작은 학교 살리기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유학생들이 전남의 넉넉한 인심을 몸소 체험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올해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과도 협력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남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7일 서울 학생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달한 전남농산어촌 학교로 전학해 생태친화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학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유학 형태는 농가에서 거주하는 농가형, 가족이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지역 내 센터에서 생활하는 센터형으로 나뉘며 6개월 이상 전학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김정환기자

나주공공도서관, VOD '웨이브 온' 서비스 시작

도내 공공도서관 최초...학생·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

나주공공도서관(관장 전만석)은 2021년 1월부터 맞춤형 영상정보서비스인 VOD(Video on demand) '웨이브 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웨이브 온'은 최신 영화 및 KBS, MBC 등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 해외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 20만편 이상을 제공하는 VOD 서비스이다.

도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VOD 서비스는 영화 및 최신 TV 드라마를 실시간 또는 매주/매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영상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도서관을 방문해 종합자료실 디지털 코너 지정 좌석을 예약해야 한다. 14세 이상 나주공공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1인 2시간까지 최신 영화 및 방송 드라마 등을 도서관에서 즐길 수 있다.

전만석 관장은 "지금까지는 도서관에서 영화 콘텐츠만 볼 수 있었는데, VOD 서비스 도입으로 학생 및 지역민들에게 케이블 방송, 해외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VOD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종합자료실(☎330-6772)로 문의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광주동부교육청, '색채 활용한 자기탐색' 직무연수 개최

교원들에게 정서적 안정 및 재충전 기회 제공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26~29일 나흘 동안 교원들을 대상으로 '2021 색채를 활용한 자기탐색'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26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속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에게 정서적 안정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교원 치유 직무연수'를 계획했다. '2021 색채를 활용한 자기탐색' 직무연수는 '2021년 교원 치유 직무연수' 중 첫 번째로 시작하는 연수다.

이번 연수는 새 학년을 준비하는 교원들의 내적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한 반당 20명씩 총 2개 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또 실시간 쌍방향 화상

연수로 진행돼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연수의 장을 확장했다.

연수는 강사로 초청된 숲심리상담교육연구소 박소현 소장의 색을 도구로 활용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내용의 강의로 진행된다. 강의는 색으로 알아보는 성격심리, 색이 보내는 메시지 등을 통해 교원 스스로 자신을 탐색하고 객관화 과정을 거쳐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각종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관계 회복의 어려움,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교원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위로와 힘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의 심



리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겨울방학 중 교원의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영광공공도서관, 겨울학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개강

다음달 5일까지 운영

영광공공도서관(관장 장혜란)은 영광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겨울학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온라인 중(ZOOM)으로 2월 5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겨울학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전년도

만족도 조사 시 희망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개설하였으며, '책으로 행복한 책놀이', '만들며 배우는 조선의 왕', '생생과학실험', '창의융합 과학실험' 등 총4개 프로그램이다.

영광공공도서관 장혜란 관장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

나, 하반기 온라인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겨울학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